

## 21세기 지식 생산의 메카 '강남대학교'

강남대학교 대외교류홍보팀

강남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자본에 의해 민족의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신학교를 모태로 하였으며, 내년이면 개교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제4대 윤신일 총장이 부임한 이래 최근 몇 년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강남대학교는 계속적인 교육개혁과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교육 인적자원부로부터 2004년과 2005년에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아시아 최초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신설, 국내 최초 중국학 단과대학 설립, 국내 최초 관학협력에 의한 특수학교 설립 추진, 국내 학교법인 최초로 신용평가에서 'A-' 등급을 부여 받는 등 21세기 지식 생산의 메카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현재 강남대학교는 제I대학, 제II대학, 제III대학, 그리고 특성화된 전략적 정책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대학, 중국학대학에서 7,000여 학생들이 21세기 리더로서의 자질인 '섬김의 리더십'을 키우며 21세기를 선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

### ■ 새천년 10개년 발전전략 수립과 학교의 변화

강남대학교는 교육시장 개방과 대학교육의 보편성 제고에 따른 대학교육의 본질적 변화에 대비하여 2000년부터 학생중심교육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행복을 공유하는 지식경영 대학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새천년 10개년 발전전략을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학생 개인의 교육요구 실현과 교육자원의 가치 극대화,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디지털 기반의 목적지향 맞춤형 실용교육을 교육의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10개년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구성원 능력 영역', '조직 역량 영역', '지배 구조 영역', '관리 기반 구조 영역', '업무 프로세스 영역' 등 각 영역별로 치밀하고 세분화된 발전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발전을 위한 10개년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4개년 주요 정책사업을 설정하여 성공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남대학교 전경 ▲

1) 질 관리 중심의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목적지향 맞춤형 실용교육 실천

교양교육을 학문 중심 운영에서 핵심 능력 중심으로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각 전공은 사회의 요구와 학생의 필요에 따라 목적지향 맞춤형 실용전공 교육을 도입하여 실사구시적 인재 육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2) 교육서비스와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대학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산학협력단을 타 대학보다 조기에 구성하여 대학기업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전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I LOVE KNU'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3) 강남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와 생명이 숨쉬는 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한 살롬 문화공동체 캠퍼스 조성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대학의 창학 이념을 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적합한 평화(살롬)의 문화 공동체로 승화시켜나가기 위해 '강남문화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남대학교는 인간의 모습을 한 세계화를 구현해 낼 인재 배출하게 될 것이다.

4) 조직의 유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 분권화 추진

각 대학은 대학장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을 단대별 교학팀 중심으로 대폭 이양하여 유연하고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해외대학 및 기관과의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제고

국제화 역량 강화는 강남대학교 교육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다. 해외 49개 대학과의 실질적 파트너십은 어느 다른 대학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미국과 일본 중심의 국제 교류를 탈피하여 러시아에서 출발하여 중국,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나아가 아프리카에 이르는 환아시아·아프리카 국제화 띠는 강남대학교만이 가진 독특한 국제화 전략이다.

6) 목적지향 맞춤형 실용교육의 성공적인 수행과 e-대학 경영 시스템의 구축

전체 학교의 경영 및 학사 운영 시스템 전산화를 위한 디제라티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디제라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학술 정보 DB, 학생의 개인별 ILRM (Individualized Learning Road Map), 온라인 행정 시스템 등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교육과 연구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2년 연속)

강남대학교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사업에서 ‘고령사회의 Universal Community 구축을 위한 실버산업 핵심 HRD’이라는 사업으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강남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사회의 Universal Community 구축을 위한 실버산업 핵심 HRD’ 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살기 좋은 미래형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인 실버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버산업의 핵심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남대학교 특성화 사업은 세 가지 전략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실버산업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사업이고, 둘째는 실버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며, 셋째는 지역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산학관 협력 사업이다.

실버산업 핵심인재 교육 사업에서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실버산업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 신설하는 등 실버산업 연계전공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내에 실버산업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Universal Design을 실버산업 교육과 접목하여 국내 최초로 Universal Design 전문가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실버산업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도 실버산업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대한민국의 실버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학관 연계사업을 통해서도 대학 인근지역의 실버산업 업체 및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강남대학교가 지역 내 실버산업의 발전과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버산업 HRD사업단을 설치하고, 대학 내의 특성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정 및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실버산업 핵심인재 교육을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하



강남대학교 콤플렉스센터 ▲

여 학부에 실버산업 연계전공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내에 실버산업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게 된다.

■ **학생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목적지향 맞춤형 실용교육 실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는 강남대학교는 2003년에 ‘아시아 복지 거점 대학을 위한 대학 특성화 계획’ (2003~2008)을 수립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소질과 잠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자주적 자아실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교육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이 핵심 요소이다.

‘목적지향 맞춤형 실용교육(GOTME :

Goal Oriented Tailor-Made Education)’은 사회요구와 개인의 학습 특성을 고려한 실용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출 희망 분야의 실용적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목적지향 맞춤형 실용교육은 진출 희망 분야의 실용적 핵심역량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사회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자아 존중감이 상승하게 되며,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통해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와 동시에 취업 경쟁력이 제고된다.

아울러 대학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학생들로 하여금 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청년 실업률을 감소하게 할 것이다. GOTME 운영을 위해 산학제휴 관계를 강화하여 실질적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으로써 재교육, 재투자 비용을 감소시키고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강남대학교는 취업률 상승으로 우수 학생 모집의 유리한 조건 확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대학 이미지 제고, 체계적인 개별화 교육으로 인한 학생 학업 중도 탈락 방지, 사회 수요에 대응한 창의적 지식인 육성으로 졸업생 취업률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 ■ 아시아 복지 거점대학으로의 역할 수행

강남대학교는 더이상 국내에 머무는 대학이 아니라 세계인의 복지를 향해 나아가는 아시아 복지 거점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대학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2개 영역의 특성화 연계전공을 설정하여 제1영역은 '21세기형 참여복지 전문 인력 양성', 제2영역은 '중국 및 중앙아시아 중심의 국제지역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제1영역 '21세기형 참여복지 전문 인력 양성'은 사회복지학부를 주축 전공(pivot major)으로 하여 학제간 연계전공을 개발·운영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복지 전문 인력과 21세기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전문 봉사인을 양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계전공을 개발하였다.

#### 1) 1단계

- 실버하우징전공 : 사회복지학부 + 도시건축공학부
- 장애인재활전공 : 사회복지학부 + 특수교육과 + 산업공학전공
- 상담심리전공 : 사회복지학부 + 교육학과

#### 2) 2단계

- 노인건강관리전공 : 사회복지학부 + 사회체육전공
- 지역복지자원개발전공 : 사회복지학부 + 경영학전공
- 예술치료전공 : 사회복지 + 교육학 + 음악, 미술전공
- 복지선교전공 : 사회복지 + 신학

제2영역 '중국 및 중앙아시아 중심의 국제지역 전문 인력 양성'은 국제학부를 주축 전공으로 하여 학제간 연계전공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중국·중앙아시아 통상 전문 인력, 국제 특수복지 선교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계전공을 개발하였다.

#### 1) 1단계

- 중국·중앙아시아 통상전공 : 국제학부 + 경영학전공 + 무역학전공
- 국제 특수복지선교전공 : 국제학부 + 신학전공 + 특수교육과

#### 2) 2단계

- 국제정보통신전공 : 국제학부 + 전자공학전공 + 컴퓨터공학 + 수학전공

### ■ 학교법인 최초 (주)한국신용평가 'A-' 등급 부여

학교법인 최초로 의뢰한 신용평가에서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2005년 5월 23일 세 번째로 높은 A- 등급을 받았다. 학교법인의 신용평가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빈번하지만 국내에서는 강남대학교가 처음이다. 금번 신용

평가 목적은 학교재단의 재정과 신용도에 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잠재적 수요자인 학생, 지원의 주체인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의 민간기업 이전 허용 등 규제 완화에 대비한 민간자본 유치에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신용평가(주)는 평가보고서에서 “차입금이 거의 없으며 학내 적립금을 200억 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재무 안정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강남대학교는 영위사업이 교육이란 공공재로 타 산업보다는 리스크가 낮은 가운데 안정된 수익구조와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입지여건 장점과 일부학과 특성화 인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학생 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 국내 최초 관학협력에 의한 특수학교 설립 추진

국내 최초로 경기도와 용인시, 강남대학교가 공동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키로 함에 따라 2005년 7월 20일 강남대학교 살림관 강당에서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2007년 3월에 개교 예정인 이 특수학교는 용인시 강남대학교 부지에 유치원, 초·중·고등부 29학급의 규모로서 경기도와 용인시가 학교 설립 비용을, 강남대학교가 부지를 제공하여 설립된다.

강남대학교 부속으로 운영될 이 특수학교는 개별화, 통합교육, 가족지원, 특별활동 등과 같은 기존 특수학교의 공통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육교육과 생태자연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특수학교에서는 모 중소기업의 공장을 교육실습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등 특색 있는 교육실습 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특수학교 부지에 이 공장을 유치하고, 이 공장의 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분석하여 장애 학생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거쳐 졸업 후에는 이 공장에 취직하여 일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특수학교 내에 특수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를 전담할 연구소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장애 학생 지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프로그램, 통합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재교구 개발은 물론 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 특수교육 관계자들을 위한 각종 연구 프로그램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원격영상교육센터를 통해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특수학교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진단과 장애 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신의 자녀가 장애 아동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부모가 많으나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하면 좋을지 아는 부모는 적다. 이러한 부모들을 위해 진단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여 자녀에 대한 발달 정보 제공은 물론, 장애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 ■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과 공동으로 복수학위과정인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신설

현재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약 30%이며 그 중에

서 약 25%가 한국 학생이다. 유학을 희망하는 한국 학생들의 수는 지난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해 왔지만, 2002년에는 330명의 지원자 중 9명, 2003년에는 448명의 지원자 중 10명, 2004년에는 277명의 지원자 중 10명이 입학 허가를 받은 실정이다. 강남대학교의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신설은 이와 같은 한국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의 수준 높은 교육 과정을 국내에서 수학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설립된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학부이다. 이 교육과정은 강남대학교와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바이마르 음악학부 운영을 위한 재정은 독일정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2005학년도부터 신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이마르 음악학부는 복수학위제 과정으로서, 피아노·바이올린·첼로·플루트·클라리넷·성악·비올라 등 총 7개 전공과정이며, 독일의 선진 음악교육 설비와 커리큘럼에 맞춰 수업이 진행된다. 강의는 강남대학교와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의 우수한 교수진이 공동으로 진행하는데, 모든 전공실기 수업은 독일의 교수진이 직접 담당하게 되며, 매년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의 저명한 교수진들에 의해 마스터클래스도 진행된다.

본 학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은 4년 과정 중 1년간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에서 유학하게 되며, 독일 유학 1년을 포함한 총 4년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 강

남대학교의 학사학위와 독일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의 학사학위를 모두 수여받게 된다.

모든 교수 레슨실에는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과 동일한 완벽한 시설(방음, 음향시스템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교수 레슨실(7)과 앙상블실, 연주홀 등 전체 강의실에 스타인웨이 그랜드피아노가 배치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음악학부 전체가 스타인웨이 그랜드피아노로 배치된 곳은 강남대학교를 포함하여 39개 밖에 없으며, 강남대학교의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가 '올 스타인웨이 스쿨'(A.S.S) 안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실로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 ■ 중국 전문가 양성의 요람 - 국내 최초 중국학 단과대학 설립

중국학대학은 학과·학부 단위에 머물러 있던 기존 중국어·중국학전공을 단과대학 규모로 격상시킨 것으로, 중국 관련 국내 최초의 단과대학이다. 어학과 실무를 겸비한 중국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학대학의 교육과정은 크게 중국실용지역학부와 중국어·문화학부로 구성된다.

중국실용지역학부는 중국법정전공, 중국비즈니스전공으로 나누어지며 중국의 법과 정치, 경제·통상·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한다. 또한 중국어·문화학부는 중국어문전공과 중국사회문화전공으로 구성돼 중국의 언어와 사회문화, 역사·철학 등을 다루게 된다. 이 밖에도 중국학대학의 핵심기관인 중국학센터를 중심으로 한 '2+2 복수학위제', '4+V 동시 졸업제', 다양한 인턴십제도, 중국관련

각종 전시회 개최 등 핵심추진 사업들은 강남대학교의 학생 및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강남대학교는 2004년에 중국의 전문 인력과 폭넓은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중간의 국가교류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학센터를 교내에 설치하였으며, 국제교육의 현실화·실용화·전문화라는 기틀 아래 중국인 유학생의 전략적인 유치와 중국 대학들과의 교류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 하반기에 중국사무소를 북경에 설치하였다.

#### ■ 지역사회와의 공동발전 추구

강남대학교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과 이를 위해 경주해 온 구성원의 노력은 21세기의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을 유도하고, 개별대학의 특성화·차별화 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권장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강남대학교는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미래지향적 대학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용인발전 연구센터 운영, 도예대학 설립, Complex Center 건립 등 지역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용인발전연구센터는 2004년 7월 6일에 용인시와 협약을 맺고 용인시의 종합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지원 및 통합적인 발전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조사·연구, 각종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 및 연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도예대학은 경기도 이천시와 협력하여 도예산업 클러스터를 핵심 축으로 세계 일류대학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예대학은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수익구조를 창출함과 동시에 도예디자인연구소를 통해 꾸준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대학원 과정, 문화센터, 사회교육원을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폭넓은 문화교류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005년 10월 17일 착공한 Complex Center는 산학협력관으로 사용될 연면적 2,550평 규모와 기숙사로 사용될 연면적 4,760평 규모(총 연면적 9,680평)로서 산업계와 학계의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점진적으로 교내의 연구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24시간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로 사용됨은 물론 기존의 학생 기숙사시설의 확충 및 해외 유학생 유치에 대비한 것으로 향후 국내 최초 외국인전용 기숙사로 활용함으로써 특화된 교육의 장 역할을 하게 된다. 